



건·강·상·식(韓方)

—當歸(당귀)—

자료제공 : 박진성 원장

- 한의학 박사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외래교수 역임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회원
- 현) 오승한의원 원장 02)534-2133



I. 처음에

피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당귀를 소개합니다.

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참당귀 일당귀의 뿌리를 말하며, 국산당귀를 참당귀 토당귀 조선당귀, 일본산을 일당귀 왜당귀라 하며, 중국 당귀도 있습니다.

마땅 當(당), 돌아올 歸(귀)라는 글자를 써서 마땅히 돌아온다는 뜻으로 당귀라 하는데, 중국의 옛 풍습에 부인들이 싸움터에 나가는 남편의 품속에 당귀를 넣어 준 것으로 유래하는데,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기력이 다할 때 품안에 당귀를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여 당귀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당귀는 달고 매우며 따뜻하고 무독하며, 肝經(간경) 心經(심경) 脾經(비경)으로 작용하며,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적혈구 생성을 왕성하게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당귀의 작용으로는 補血和血調經(보혈화혈조경), 活血止痛(활혈지통), 潤腸通便(윤장통변)의 효능이 있다.

II. 효 능

1. 補血和血調經(보혈화혈조경)

피를 보충하고 월경을 조절하는 요약으로 피가 적은 생리통 생리불순 폐경 복통 등에 사용되며,

2. 活血止痛(활혈지통)

창상이나 어혈 타박상 산후에 피가 멎어서 생기는 통증에 사용되며,

3. 潤腸通便(윤장통변)

장에 피가 부족하여 수분이 말라 건조해지는 변비 특히 노인이나 소아 중풍 병자 수술 후에 생기는 변비에 피를 보충하면서 대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며,

특히 당귀는 피에 관한 모든 질병에 사용할 수 있는 唯獨一物(유독일물)의 약재로 뿌리의 머리를 사용하면 止血(지혈)하되 上行(상행)하여 약이 작용하며, 꼬리를 사용하면 破血(파혈)하며 下行(하행)하여 작용하며, 몸통을 쓰면 補血(보혈)養血(양혈)하며 中守(중수)하는 작용을 하며, 잔뿌리 수염을 사용하면 治血(치혈)하고, 전체를 쓰면 和血(화혈)하며 전신을 운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을에 채취한 당귀를 차로 마시면 사람의 모든 피를 조화롭게 할 수 있으니 특히 여성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